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로 알려주세요.

교황, 손등 때렸던 여성 만나 사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작년 12월31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신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당긴 여성의 손을 때린 것에 대해 당사자를 만나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가톨릭신문'이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발간하는 가톨릭 신문 '아베니레' (Avvenire)의 10일자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교황은 지난달 8일 일반 신도들과 마주하는 수요일만 알현 때 해당 여성을 따로 만나 사과를 했다. 이 만남에서 교황은 환한 미소와 함께 해당 여성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작년 연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가톨릭 신문인 '알레테이아' (Aleteia)는 교황이 당시 일에 대해 스스로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의 초기 대응을 후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화는 여성과 같은 국가 출신 사제의 통역을 빌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중국계로 추정되나 정확한 국적이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티칸 교황청은 언론 등을 통해 이 만남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바 없다.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 최근 바티칸 미디어 웹사이트에 등록되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로 옮겨지면서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황은 여성의 손등을 때린 다음 날인 새해 첫날 삼종기도회에서 "우리는 종종 인내심을 잃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라며 사과한 바 있다.

일일성회 주님의사랑교회

주님의사랑교회(담임목사 서사라, 216 E. 31st St., LA, CA 90011)가 지난 9일 이정현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장)를 초청해 일일성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정현 목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9절)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마귀와의 영적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는다."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 고난을 이겨낼 것을 당부했다.



사랑은 원수까지도(마태 5:38~48)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또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야말로 바로 거룩한 삶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쉽고 즐거우면서도, 다른 한편 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눈물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잘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 시간과 내 정력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삶의 에너지가 크게 생깁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죽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서는 저주를 내리는 것이 더 쉽고 더 유쾌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공로가 되고 더 은혜가 됩니다. 자신이 죽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큰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집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것이 아주 요물이라 시아버지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밥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며 곱짓하면 말대답이요, 한술 더 떠서 시아버지



를 쫓아내겠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요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아들이 뭐라고 한마디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들고 대드니 이리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면서 가슴앓이만 했습니다.

하루는 장에 갔다온 아들이 자기 마누라에게,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아, 글썽 통통하게 살찐 영감을 사겠다고 소리치고 다니는 작자가 있던데 그걸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누라가 무릎을 치며 "맞아요. 아버지를 살찌워서 팝시다."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시아버지 공경을 아주 극진하게 했습니다. 비싼 값에 팔려서 욕심 때문에 돈도 아끼지 않고 늘 고기와 쌀밥으로 봉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만 가지고는 살이 안 찰 것이다 해서 시아버지의 맘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바칩니다. 마실값다 오시면 안마도 해 드리고 방은 늘 따뜻하게 불을 지펴 놓곤 했습니다.

이러니 시아버지가 참으로 살판이 났습니다. 하루는 며느리에게 그

랬습니다. "야야, 내가 요즘 마실다 니면서 아주 기를 펴고 산다. 사람들이 온통 네 자랑이요 칭찬이 자자하여 동네에서 원님 앞으로 효부상을 올리겠다고 하는구나. 세상에 시아버지 안마까지 해 주는 며느리가 너 말고 누가 또 있겠느냐." 하면서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부모님 잘 모시는 것은 사람의 도리인데도 글썽 요즘 우물가에 가면 동네 여자들이 저보고 속도 곱고 마음도 비단 같다고 칭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저희 집에 효도 구경 오겠대요." 하면서 진심으로 시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여보, 이제 저 정도면 값을 비싸게 받을 것 같으니까 오는 장날에는 아버지를 그만 내다 팔도록 합시다." 하고 마음을 떠봤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장에 팔자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자기는 시아버지 모시는 재미로 산다고 하더랍니다.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선 자기가 죽어야 하며, 죽어야만이 예수님처럼 가장 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서가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원수일 망정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닮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강길웅 신부-

Advertisement for Suh & Suh Law Offices. Features an image of two hands holding a glowing orb. Text: "법률 문제로 도움을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www.suhlaw.com info@suhlaw.com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I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